

척수질환의 진단과 발생양상에 대한 추적보고 (72예, 2002~ 2006)

황현민, 정성목*, 이재연, 지현철, 이영원, 최호정, 박성준, 조성환, 손화영, 김명철

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

서론: 척수질환은 병력 청취, 신체 검사, 신경계 검사, 일반 방사선 검사, 척수 조영법등의 진단 기법으로 확진하지 못한 것이 컴퓨터 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. 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환축들 중 척수질환으로 진단된 환축들을 조사함으로써 발생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: 2002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충남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 내원한 신경계 환축 중 척수질환으로 진단된 72증례에 대해 연도별 발생빈도, 종, 품종, 나이, 성별, 몸무게, 질환명, 및 검사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.

결과: 신경계 환축은 2002년 27증례, 2003년 34증례, 2004년 21증례, 2005년 40증례, 및 2006년 26증례로 조사되었다. 신경계 질환중 척수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22.2%(6), 2003년 17.6%(6), 2004년 52.4%(11), 2005년 63.3%(31), 및 2006년 69.2%(18)이다. 개가 70예(97.2%)가 있었으며, 그 중 말티즈 15예, 요크셔 테리어 10예, 페키니즈 9예, 잡견 8예, 푸들 7예, 코커 스파니엘 7예, 시츄 4예, 및 기타 12예가 있었다. 고양이는 2예였으며 모두 한국고양이였다. 척수질환이 발생한 나이는 평균 5.3세이고, 66.8%가 6년령 이하에서 발생되었다. 암컷이 43두, 수컷은 29두로 암컷에서의 발생예가 더 많았다. 체중은 평균 5kg으로, 90%가 9kg이내에 분포하였다. 발생한 질환은 추간판탈출증(39예), 척수공동증(21예), 척수연화증(9예), 섬유연골색전증(6예), 추간판척추염(5예), 환축추불안정증(3예), 척수염(3예) 등이 있었다. 72증례 중 30예를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진단하였으며, 11예를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.

임상적 의의: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장치를 도입한 2002년을 기점으로 척수질환의 진단이 더욱 용이해졌으며, 이를 바탕으로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할 수 있었다.

* Corresponding author : jsmok@cnu.ac.kr